경제혁신

희망의 새시대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http://www.motie.go.kr

10월 29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 10월 29일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: 산업정책과 문동민 과장(044-203-4210), 권주현 사무관(044-203-4212)
스마트공장팀 이규봉 팀장(044-203-4239), 정민규 사무관(044-203-4235)

윤상직 장관, "뉴노멀 시대, 우리 경제의 활로는 구조개혁과 혁신"
-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-

① **글로벌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·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등 5대 프로젝트** 추진 → **'16년 320억원 民官투자 착수**

② 산업연구원(KIET), 산업생태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면 **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과 인내**를 갖고 **「제조업 혁신 3.0」을 추진**해야

< 주요 내용 >

◈ 산업부는 **10.29일(목)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**를 개최하고, 우리 산업의 **혁신역량 확충 및 경쟁력 제고**를 위해 **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의 성과 확산과 발전방안**에 대해 논의함

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"작금의 세계경기 위축은 **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(New Normal)의 문제**"라고 하면서 "**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구조개혁과 혁신**"이라고 강조함

① 미국·독일·중국 등 **경쟁국과의 제조업 패권경쟁***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**「제조업 혁신 3.0」을 꾸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**

* 미국 「Making in America」, 독일 「Industry 4.0」, 중국 「제조 2025」, 한국 「제조업 혁신 3.0」은 제조업-IT융합을 통한 스마트혁명을 제조업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

② **"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인 올해와 내년을 놓쳐서는 안 된다"고 하면서, 연내 5개 노동관계법 개정** 및 **산업체질 개선**을 위한 **「기업활력법」 제정 요청**

* 한국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(%, OECD) : ('12~'17)4.1→('18~'30)3.3→('31~'60)0.6

③ 우리 기업들이 **중국시장을 선점**하고, **2번의 관세인하효과**(금년, 내년 각 1회)를 누릴 수 있도록 **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** 강조

◈ 산업부는 당초 목표대로 **'20년까지 1만개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을 차질 없이 이행**하는 한편,

○ **'16년 민관합동 32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「5대 시범 프로젝트」**를 추진키로 하였음

< 스마트공장 고도화 「5대 시범 프로젝트」 주요내용 >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
클라우드·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	▪ 국내 통신사와 함께, 혁신산단 위주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⇒ '16년 2개 산업단지, 300개사 대상 지원 추진
고도화 모델공장 구축	▪ 가상현실, IoT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, 맞춤형 유연생산 등이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 모델공장 구축 ⇒ '16년 국내기술을 적용하여 고도화 모델공장 6개 구축
마더공장(Mother Factory) 구축	▪ 설계, 생산, 물류 등 全과정에 최첨단 기술의 적용·실증이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공장의 테스트베드 구축 ⇒ '16~'20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여 마더공장 구축
스마트공장 대표 공급사 육성	▪ 스마트공장 기술 자립, 글로벌 수준의 공급기업 양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⇒ '16년 글로벌 수준의 공급기업 10개사 육성 추진
스마트공장 표준화	▪ 스마트공장의 자발적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공장 요소기술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표준 확립 추진 ⇒ '16년 운영시스템에 대한 KS표준 제정 및 진단서비스 개시

◈ 산업연구원(KIET: 원장 김도훈)는 우리 제조업이 **세계 프론티어에 근접**하여 **추격형 전략이 유효**하지 않은 만큼, **혁신지향적 정책으로 전환**할 것을 제언

○ **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**이 **국내 혁신지향적 산업정책의 근간(Back Bone) 역할을 담당**하고 있으며,

- 미국 **「Making in America」**, 독일 **「Industry 4.0」**, 중국 **「제조 2025」**과 같이, **제조업 혁신의 방향으로 제조업과 정보기술(IT)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혁명이 일치**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

○ 아울러, **제조업 혁신 3.0 전략**을 통해 **산업생태계의 질적 변화**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**정책적 유행에 그쳐서는 안 되며,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**을 강조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0-29 09:17:47

회의 개요

※ 참고1. 제조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요

□ 산업부는 '15.10.29.(목)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,

○ **우리 산업의 혁신역량 확충 및 경쟁력 제고**를 위해 **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**의 **성과 확산과 발전방안**을 논의함

< 제조혁신위원회 회의 개요 >

- 일시 : '15.10.29.(목), 07:30~09:30
- 장소 : 여의도 콘래드 호텔 6층
- 참석 : 산업부장관, 제조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명
- 안건 : ① 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(KIET),
  ② 스마트공장 추진현황 및 계획 (산업부)

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요지

※ 참고2.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전문

□ 윤상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"**세계경제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**(New Normal), 우리 경제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**4대 구조개혁**과 **제조업 혁신에 매진**해야 된다."고 강조함

① **(4대 구조개혁)** 우리 **경제의 재도약**과 **중장기 안정적인 성장**을 위해 **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인 올해와 내년에 4대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고 추진**해야 된다고 강조

- 지난 **9월 노사정 대타협**을 통해 도출된 **노동개혁안**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**연내 5개 노동관계법 개정**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함

- 또한 산업의 **근본적인 체질 개선**과 **산업생태계의 역동성 제고**를 위해 **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의 촉진 필요성**도 제기함

- 이를 위해 **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**의 **연내 제정**을 뒷받침하고, 관련 **애로해소와 규제개선**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

② **(제조업 혁신 3.0 전략)** 美(Making in America), 獨(Industry 4.0), 中(제조 2025) 등 경쟁국은 공히 **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**을 **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**하고 대응 중이라고 하면서,

- 우리도 제조업 혁신 3.0 전략을 **향후 10년간 꾸준히 추진**해 나간다면 **산업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**시킬 수 있다고 평가함

③ **(FTA 비준동의안 처리)** 우리 기업들이 **해외시장에 적극 진출**할 수 있도록 **국회에 제출된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**를 요청함

- 특히 **한·중 FTA**는 **12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선점**하고, 2번의 **관세인하 효과**(올해와 내년 각 1회)를 누리기 위해 **연내에 반드시 처리**되어야 된다고 강조함

제조혁신위원회 주요내용

MOTIE
ISTRY OF
DE, INDUSTRY & ENERGY

<발표 1> 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」(KIET)

□ 산업연구원은 **세계경제의 저성장**(New Normal), **중국 리스크 부상**, 우리 경제의 **저성장과 수출의 구조적 둔화**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**전통적인 산업정책의 유효성이 하락**하고 있다고 진단함

○ 특히, 우리 **제조업의 노동생산성**과 **총요소생산성이 함께 둔화**되는 추세이며,

* OECD 제조업 시간당 생산성 비교('13) : 한국 17위 (OECD 24개국 중)
* 제조업 노동생산성(연평균, %) : ('90~'00)10.6→('00~'10)7.2→('10~'13)2.8→('14)0.5
* 기간별 제조업 총요소생산성(연평균, %) : ('91~'00) 4.9 → ('01~'12) 2.2

- 세계 금융위기 이후 **수출경쟁력 및 수출의 성장기여도 둔화**, **낮은 제조업 혁신도**로 인해 제조업 부진이 우려됨

* 세계 금융위기 전후 한국 수출증가율 비교(연평균, %) : ('00~'08) 11.9, ('11~'14) 1.0
* 수출의 성장기여도(연평균, %p) : ('00~'08)3.9→('12)2.8→('13)2.4→('14)1.5→('15.1Q)0
* 주요국 혁신도 비교(OECD) : (獨) 83.0, (佛) 56.1, (日) 50.4, (英) 48.2, (韓) 38.3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0-29 09:17:47

- 또한 **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세계경제로 통합**되는 과정에서 **국내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저하**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<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·중·일 수출 부가가치 변화 비교(%) >

1995년					
	한국	중국	일본	그외	총합
한국	75.0	1.5	5.3	18.2	100.0
중국	1.5	84.2	3.4	10.9	100.0
일본	0.5	0.3	93.7	5.5	100.0

⇨

2011년					
	한국	중국	일본	그외	총합
한국	59.7	6.6	3.8	29.9	100.0
중국	1.4	78.2	2.2	18.2	100.0
일본	1.0	2.8	83.0	13.2	100.0

○ 이러한 경제·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, **중장기 잠재성장률 저하*** 등 **구조적 어려움이 본격화될 우려**가 크다고 하면서,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함

*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(%, OECD '13): ('12~'17) 한국 4.1, OECD 1.9 → ('18~'30) 한국 3.3, OECD 2.3 → ('31~'60) 한국 0.6, OECD 1.6

□ 이처럼 **우리 경제는 과거 양적 성장방식의 한계에 도달**했다고 보면서,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**혁신지향적 정책이 필요**하고, **제조업 혁신 3.0 전략이 이에 대한 해법**이라고 평가함

○ **세계 프론티어 수준에 근접**한 우리나라 제조업은 **과거에 없던 '새로움'**, 즉, **혁신을 창출**해야 하며, 이러한 **혁신의 정책적 구현 노력이 제조업 혁신 3.0 전략에 반영**되었다고 봄

○ 아울러, 美「Making in America」, 獨「Industry 4.0」, 中「제조 2025」과 같이, **제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혁명**을 **제조업 혁신의 방향으로 공유**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

□ 한편, 작년 제조업 혁신 3.0 전략 수립('14.6월) 이후 생산현장, 제품 등 제조 전반에 스마트 혁신을 추진한 결과, **제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**되었다고 평가함

○ 산업부에 따르면 **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불량률 33% 감소 등 성과***가 나타나고, **혁신산단 조성**을 통해 **청년인재의 산업단지 유입이 20~30% 증가**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됨

* 불량률 33% 감소, 원가 23% 절감, 납기 27% 단축 등 생산성 향상('15.6, 대한상의)

□ 제조업 혁신 3.0 전략이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 **융합생태계 기초단위인 스마트공장의 적극적인 추진**과 개념·기획 설계, 디자인 등 **제조업 소프트파워에 대한 경쟁력 확보**가 시급하다고 언급함

□ 끝으로 **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4대 제언**을 함

기업	**▪ 필사즉생(必死則生)의 각오로 혁신에 매진해야** - 과감한 사업재편과 대·중소 협업의 혁신생태계 구축
정부	**▪ '선택과 집중', '기업보조 보다 기반조성' 원칙 견지** - 혁신기업 지원에 집중, 기업활력법 제정 등 규제 개선
[illegible] 위원회	**▪ 제조혁신위원회를 제조업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격상** - 실질적 민관 합동의 제조업 혁신을 위해 혁신위 역할 강화
추진방향	**▪ 생태계 전반에 제조혁신이 확산**되도록 **인내** 필요 - 제조혁신의 파급효과가 확산되기 위해 일관된 추진이 중요

MOTIE
ISTRY OF
DE, INDUST

<발표 2>「스마트공장 고도화 방안」(산업부)

□ 산업부는 당초 목표대로 **'20년까지 1만개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을 차질없이 진행**하는 한편,

○ **'16년 32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**를 시작으로 **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「5대 시범 프로젝트(pilot project)」를 추진**키로 함

○ **5대 시범 프로젝트**는 '**클라우드(Cloud) 방식**'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개별공장 단위의 스마트화를 넘어,

- **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연결되는 "초연결 시대의 제조환경 구현"**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< 스마트공장 고도화 「5대 시범 프로젝트」 >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
클라우드·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	▪ 국내 통신사와 함께, 혁신산단 위주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⇒ '16년 2개 산업단지, 300개사 대상 지원 추진
고도화 모델공장 구축	▪ 가상현실, IoT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, 맞춤형 유연생산 등이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 모델공장 구축 ⇒ '16년 국내기술을 적용하여 고도화 모델공장 6개 구축
마더공장(Mother Factory) 구축	▪ 설계, 생산, 물류 등 全과정에 최첨단 기술의 적용·실증이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공장의 테스트베드 구축 ⇒ '16~'20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여 마더공장 구축
스마트공장 대표 공급사 육성	▪ 스마트공장 기술 자립, 글로벌 수준의 공급기업 양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⇒ '16년 글로벌 수준의 공급기업 10개사 육성 추진
스마트공장 표준화	▪ 스마트공장의 자발적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공장 요소기술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표준 확립 추진 ⇒ '16년 운영시스템에 대한 KS표준 제정 및 진단서비스 개시

○ 산업부는 그간 **963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**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**생산성 향상과 자발적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***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함

* 스마트공장의 중요성·필요성 인식(대한상의, %): ('14.12) 57.0 → ('15.5) 72.9

- 다만,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**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**도 많이 있다고 하였음

○ 한편, '16년부터는 **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**가 기업의 접점에서 **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거점기능을 수행**할 예정이라고 함

□ 산업부는 **5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**과 함께 **'20년까지 1만개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**할 경우,

○ 우리 제조업의 **공정 생산성이 30% 향상**되는 등 **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**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

<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>

※ 제조혁신위원회 참석자 주요발언은 회의 종료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할 예정임

향후 계획

□ 산업부는 **제조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**으로,

○ Post-2020 **新기후변화체제 출범** 등 **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**을 함께 고려하여, 향후 **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을 보완·발전해 나갈 것**이라고 하였음

MOTIE
ISTRY OF
DE, INDUSTRY & ENERGY

붙임 자료 첨부 : (참고1) 제조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요
(참고2)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전문

별도자료 제공 : (참고3) 제조업혁신 3.0 전략 추진현황
(참고4) 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
(참고5) 스마트공장 추진현황 및 계획
(참고6) '16년도 스마트공장 고도화 5대 파일럿 프로젝트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권주현 사무관(☎ 044-203-42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제조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요

□ **행사목적**

○ **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**를 위한 **대표 산업정책**으로서 **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**을 **점검**하고 **산업계의 동참을 위한 분위기 제고**

□ **행사개요**

○ **일시/장소** : **10.29(木), 07:30~09:30 / 여의도 콘래드호텔 6층**

○ **참석** : **산업부장관, 제조혁신위원** 등 **20여명**

○ **논의내용**

① **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**(산업연구원)

* 제조업 혁신 필요성 재조명, 제조업 혁신 3.0 평가, 정부 및 기업에 확산 제언

② **스마트공장 추진현황 및 계획**(산업부)

* (5대 프로젝트 추진) 클라우드·빅데이터형 스마트공장 보급, 고도화 모델공장 구축, 마더공장 구축, 스마트공장 대표 공급사 육성, KS표준화·진단서비스

□ **세부 진행순서(안)**

시간	내용	비고
~ 07:30	티타임, 참석자 입장	
07:30~07:34(04')	기념촬영	· 제조혁신위원 전원
07:34~07:39(05')	모두말씀	· 산업부 장관
07:39~07:49(10')	(발제1) 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	· KIET 원장
07:49~07:59(10')	(발제2) 스마트공장 추진현황 및 계획	· 스마트공장팀장
07:59~09:27(78')	자유 토론	· 참석자 전원
09:27~09:30(03')	마무리말씀	· 산업부 장관

※ **모두 말씀이후 비공개** 진행(**사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내용 배포** 예정)

참고2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전문

1. 인사말씀

안녕하십니까? **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입니다.
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,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2. 대내외 경제여건 진단

금년 들어 우리 **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**되고 있습니다.

세계경제가 **저성장, 저유가, 저금리**로 대표되는 **뉴노멀**(New Normal)로 **진입**했습니다.

작금의 세계경기 위축은 **경기순환적인 현상**이 아닌, **구조적인 저성장의 문제**로서, 당분간 **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**의 **세계경제 성장률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**되고 있습니다.

대내적으로는 **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** 등으로 우리 **경제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**에 다다르고 있고, 우리 제조업이 **세계 프론티어 수준에 근접**하면서, 더 이상 **추격형 전략도 통용될 수 없는 상황**입니다.

이러한 **불리한 대외여건과 구조적인 도전들을 고려**할 때, 우리 **경제와 산업의 유일한 활로**는 바로 "**구조개혁**"과 "**혁신**"입니다.

3.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

먼저, 노동·교육·공공·금융 등 **4대 구조개혁에 매진**해야 합니다.

OECD는 우리 **경제의 잠재성장률**이 **2018년부터 3%대로 하락**하고, **2030년 이후에는 0%대로 주저앉을 것**이라는 **암울한 전망**을 내놓고 있습니다.

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인 **올해와 내년을 놓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.**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0-29 09:17:47

우리 **경제의 재도약**과 **중장기 안정적인 성장을** 위해 **4대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고 추진**해 나가야 합니다.

특히, 지난 **9월 노사정 대타협**을 통해 도출된 **노동개혁안이 신속하게 추진**될 수 있도록 **금년내 5개 노동관계법 개정** 등 후속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.

아울러, 우리 **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**과, **산업생태계의 역동성 제고**를 위해 기업의 **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촉진**해 나가야 합니다.

정부는 기업의 **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**하기 위해 관련 **애로해소와 규제개선에 만전**을 기하는 한편, '**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**'이 **연내에 제정**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4. 제조업 혁신 3.0의 꾸준한 이행

둘째, 우리 **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**를 위해 **제조업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**해야 합니다.

미국의 「Making in America」, 독일의 「Industry 4.0」, 중국의 「제조 2025」 등 **세계 제조업의 패권**을 잡기 위한 각국의 **제조업 혁신경쟁이 본격화**되고 있습니다.

이들 **국가들의 전략의 핵심**은 **제조업과 IT 융합**을 통해 **스마트 혁명**을 앞당기는 것입니다.

우리도 **제조업 혁신의 방향**으로 **스마트 혁명을 제시**하고, 금년 3월 **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 실행대책**을 수립하여 **차질 없이 이행**해 오고 있습니다.

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**중소기업의 현장 생산성**이 **평균 30% 가량 향상**되고, **혁신산단 조성**으로 **청년인재의 산업단지 유입**이 **20~30% 가량 증가**하는 등 **제조업 혁신을 통한 변화의 조짐**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.

또한 **자율주행자동차, 드론, 핵심소재** 등 **미래 성장동력**을 **조기에 창출**하기 위한 **기술개발과 사업화, 규제개혁**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**세계 최초로 초경량 마그네슘 판재를 개발, 양산차량에 적용**하는 등 **기술개발에 따른 사업화의 성과도 속속 등장**하고 있습니다.

저는 이러한 **제조업 혁신의 성과를 확산**시키고, **제조업 혁신 3.0 전략**을 **향후 10년간 꾸준히 추진**해 나간다면 우리 **산업생태계에 획기적인 변화**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

앞으로 **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**가 우리 **제조업 혁신의 꾸준한 이행**을 위한 **구심점**이 되어, **스마트공장 고도화, 미래 성장동력 창출** 등 **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확산과 발전**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합니다.

마지막으로, **제조업 혁신을 통해 향상된 경쟁력**을 바탕으로 **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**할 수 있도록 **국회에 제출된 FTA 비준동의안**이 **조속히 처리**되어야 합니다.

특히, **한·중 FTA 비준동의안**은 **12조 달러 규모의 지역 경제공동체**를 **선점**하고, **우리 기업들이 2번의 관세인하 효과**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**연내에 처리**되어야만 할 것입니다.

5. 맺음 말씀

"**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**"는 **어느 소설의 한 구절**처럼, **글로벌 경쟁**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**신속하게 구조개혁과 혁신을 추진**해 나가야 합니다.

오늘 회의에서 **구조개혁과 제조업 혁신의 확산과 발전**을 위한 **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**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0-29 09:17:47